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6월 4주~7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 자바 북부 해안 거대 방파제 사업 1,297조 Rp 투자 예상, 민간 참여 촉구¹⁾(bisnis, 6/12)

- 주재국 상공회의소(KADIN) Anindya Novyan Bakrie 회장은 자바 북부 해안 Giant Sea Wall(거대 방파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Anindya 회장은 해당 사업이 약 30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사업으로 자바 연안 지역 주민 보호와 생존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임을 언급함
- Anindya 회장은 사업 추진에 약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수익성(imbal hasil) 계산과 규정 내 지속 추진 보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political will(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함
- Prabowo 대통령은 GSW 사업이 Banten에서 Gresik까지 약 500km 구간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며, 총 투자비는 약 800억 USD, 약 1,297조 Rp에 이를 것으로 설명하였음. GSW 사업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frastructure 2025 행사에서 공식 제시되었음

○ 주재국 2028년 해류 발전소 가동 목표²⁾(bisnis, 6/16)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주재국 최초의 해류 발전소(PLTAL)를 2028년 가동 목표로 개발할 계획임. 발전소는 누사틍가라티무르

(NTT)와 누사틍가라바랏(NTB) 지역에 각각 20MW씩 설치되며, 총 40MW 규모로 추진됨. 투자액은 약 3.58조 Rp로 추산됨

- 이번 PLTAL 사업은 SBS Indonesia(영국), Nova Innovation(영국-PT Pertamina Power Indonesia), Tidak Bridge(네덜란드) 등과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설명됨
- 해류 발전은 2025~2034 전력공급계획(RUPTL)에 포함되어 있으며, Selat Lombok, Selat Alas, NTT 지역의 해류 및 파력 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약 20MW 규모 추가 개발 가능성도 언급됨. ESDM은 PLTAL 기술을 파력, 해수 온도 차, 염도 구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부 기술 개발을 병행 중임

○ 자바 북부 해안 거대방파제 건설 사업 본격 추진 예정 ³⁾(bisnis, 6/16)

- 공공사업부(PU) Dody Hanggodo 장관은 자바 북부 해안을 따라 Banten부터 Gresik까지 약 500km에 걸쳐 조성될 Giant Sea Wall(GSW) 사업을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Prabowo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조치로, 북부 해안 지역의 침수 피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강조됨
- 정부는 GSW의 우선 시공 지역으로 DKI Jakarta와 Semarang을 선정했으며, 향후 Pekalongan, Brebes 등 저지대 해안 지역으로 확대 예정임. 특히, Semarang 및 Demak 지역 해안 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바북부 해안GSW청(Badan Otorita) 설립이 추진 중임
- Prabowo 대통령은 2025년 6월 국제 인프라 회의(ICI)에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800억 USD, 즉 1,297조 Rp(환율 1 USD = 16,219 Rp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함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612/45/1884549/proyek-giant-sea-wall-butuh-investasi-rp1200-triliun-swasta-minat>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616/44/1885201/pembangkit-tenaga-air-laut-di-targetkan-beroperasi-2028-kecepatan-40-mw>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616/45/1885203/menteri-pu-pastikan-giant-sea-wall-banten-gresik-segera-diekskusi>

○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 사업,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투자자 관심⁴⁾
(bisnis, 6/15)

- 교통부 Suntana 차관은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 사업이 현재 노선 결정 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FS) 단계에 있으며, 일부 국내 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힘. 기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Whoosh)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본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남부 또는 북부 노선 중 어느 경로를 채택할지 검토 중임
- 본 사업은 화물 및 여객 이동을 위한 국가 물류 개선의 핵심 기반시설로 간주되며, Suntana 차관은 사업 타당성 검토 이후 실행 목표를 설정할 계획임
- 국가경제위원회(DEN) Luhut Binsar Pandjaitan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대통령령(perpres)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공동연구(joint study)로 이어질 예정이며, 이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보다 발전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현재 본 사업은 2020년 제296호 교통부 장관령(국가 철도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음

○ 세마랑-데막 유료도로, Giant Sea Wall과 통합 추진 중⁵⁾(bisnis, 6/18)

- 공공사업부는 세마랑~데막 유료도로 1구간(10.64km)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해당 구간은 해상 위에 건설되어 Giant Sea Wall과 통합되는 구조임을 설명함
- 해당 도로는 Semarang 및 Terboyo 산업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바 북부 해안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2025년 6월 기준, 해당 구간의 전체 공정률은 44.26%이며, 그 중

Hutama Karya와 Beijing Urban Construction Group이 담당한 1A 패키지는 65.92%의 진척을 보임. 전체 세마랑-데막 유료도로는 총 연장 26.95km이며, 2구간(Sayung-Demak, 16.31km)은 2025년 2월부터 운영 중임

○ 러시아와 인프라 협력 확대 및 BRICS 정회원국 배경에서의 협력 강화⁶⁾(ibp, 6/18)

-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 장관은 2025년 6월 러시아의 주인도네시아 대사 Sergei Tolcahnov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확대에 합의함.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해양 인프라, 조선, 기술 이전, 통합 인프라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함
- AHY 장관은 Prabowo 대통령 정부가 연 8% 경제성장 달성, 식량·물·에너지 안보 강화, 교육·보건·빈곤 감소를 통한 국민 복지 향상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의 협력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함. 주재국은 2025년 1월부터 BRICS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 회복력 측면에서 BRICS 내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서칼리만탄, 향후 원자력 발전 유력 후보지로 부상⁷⁾(ibp, 6/18)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서칼리만탄을 수력, 바이오매스, 석탄,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원자력 자원은 Melawi 지역에 분포된 약 24,112t의 우라늄 및 토륨 매장량이 핵심임. 이 내용은 국영전력공사(PLN)의 2025~2034년 전력공급계획(RUPTL)에도 반영되어 있음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615/98/1885075/wamenhub-sebut-proyek-kereta-cepat-jakarta-surabaya-mulai-dilirik-investor>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618/45/1885941/proyek-tol-semarang-demak-terintegrasi-giant-sea-wall-intip-progresnya>

6)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4538/geopolitics-and-diplomacy/indonesia-russia-open-new-chapter-in-infrastructure-cooperation>

7)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4546/national-resilience/west-kalimantan-tipped-as-strategic-site-for-nuclear-power-development>

- 정부는 국가연구혁신청(BRIN, 구 BATAN)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 28개 후보지를 조사하였으며, 모두 기술적으로 원자력 발전소(PLTN) 부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 총 70GW 규모의 발전 용량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이 초기 구축 우선 지역으로 고려되고 있음. 해당 지역은 연료 자원 접근성, 전력 수요 증가, 기반시설 여건 등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음

- 원자력 도입은 정책 방향과 타당성조사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 연료공급 안정성, 규제 이행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음.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자력 도입이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나, 정책 명확성, 안전성 검토, 국민 수용성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 주재국 폐광지 태양광 발전 잠재력 세계 2위⁸⁾(*antara*, 6/18)

-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의 최신 보고서 Bright Side of the Mine에 따르면, 주재국은 폐탄광 및 미활용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세계 2위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부지는 총 1,190km²에 달하며, 주요 지역은 남칼리만탄 및 동칼리만탄이며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26개 광산 부지를 포함함. 이를 활용할 경우 최대 59.4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함
- 그러나 현재 주재국 정부는 폐광지 태양광 발전소(PLTS)로 600MW 규모의 개발만 계획 중으로, 전체 잠재력 대비 실현 수준은 매우 미미함. 예를 들어, 국영 석탄기업 PT Bukit Asam은 2021년부터 서수마트라·남수마트라·동칼리만탄의 폐광지에 각각 200MW, 200MW, 30MW 규모의 PLTS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임

- 보고서는 폐광지 활용이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함. GEM은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 수립, △광산 복구와 PLTS 통합 투자 전략 마련, △지역 노동자 및 주민 참여 보장 등을 정부에 권고함. 보고서는 폐광지를 활용한 PLTS 개발로 25만 9700개의 상시 고용과 31만7500개의 일시적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함

○ 신수도 개발 2단계 진입, 6월 말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개시⁹⁾(*detik*, 6/23)

- 신수도 개발이 곧 2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 말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시작될 예정임. 6월 23일 2단계 사업 착수의 신호로 새로운 공사 계약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전착공회의(PCM)가 정부핵심업무지구(KIPP)에서 개최되었음
- 신수도청 Basuki Hadimuljono 청장은 PCM의 목적이 공사 방법론, 현장 내 교통 체계, 관계기관 간 기술 조율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Basuki 청장은 2단계는 1단계보다 더 높은 기준과 협업, 규율이 요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강조함. 공사 기간이 우기와 겹치며 6개월(12월까지)로 한정된 만큼, 철저한 시간 관리가 필수적임
- Basuki 청장은 품질, 환경 지속성, 미관 등 고도 기준을 강조하며, 진척률 부풀리기, 부패, 비윤리적 관행 없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당부함. 특히 배칭플랜트 운영, 자재 수송 트럭의 청결, 과적·과규격 운행 금지(ODOL), 폐기물 처리시 방수포 덮개 사용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현장 폐쇄까지 언급함

8) <https://www.tempo.co/ekonomi/bank-dunia-berkunjug-ke-ikn-untuk-apa--1673329>

9) <https://finance.detik.com/infrastruktur/d-7377929/pembangunan-ikn-masuk-tahap-ii-jelang-proyek-dimulai-akhir-juni-2025>

○ 싱가포르, 신수도에 5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¹⁰⁾(tempo, 6/20)

- 싱가포르는 신수도에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싱가포르의 에너지 기업 Sembcorp와 국영전력공사(PLN) 산하 PLN Nusantara Renewables 간의 합작 프로젝트로, 양사는 PT Nusantara Sembcorp Solar Energi를 설립함
- 2025년 6월 16일 싱가포르 국회의사당에서 체결된 본 사업 MoU 서명식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싱가포르 Lawrence Wong 총리가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음. 신수도청 Basuki Hadimuljono 청장은 해당 발전소가 총 86ha 부지에 건설되며, 이는 주재국과 싱가포르 간 재생에너지 협력의 일환임을 밝힘
- Basuki 청장은 본 프로젝트가 단순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넘어, 생태기반 공간계획 및 열대림 보존 원칙에 따라 조성되는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 개발임을 강조함. Basuki 청장은 신수도가 스마트·지속가능·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50MW 태양광 발전소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자카르타주정부, 발리 MRT 건설에 기술 자문 및 자원 확보 전략 지원¹¹⁾(suara, 6/20)

- 자카르타주정부 Pramono Anung 주지사는 발리주정부의 MRT 건설 계획에 대해 자카르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원과 자금 조달 전략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자카르타주는 직접적인 자금 이전이 아닌, 기술 자문 및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한 전략적 지원 형태로 협력을 진행할 예정임
- Pramono 주지사는 현재 Jakarta MRT 노선을 남탕그랑(South

Tangerang)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PT MRT Jakarta 사장에게 Banten주정부와 즉시 협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함. 또한, Bundaran HI-Monas 구간의 MRT 2단계 사업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힘

- Pramono 주지사는 Jakarta MRT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MRT 건설을 계획 중인 재정 능력 보유 지역에 대해 자카르타주정부가 경험 공유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함

10) https://en.tempo.co/read/2019800/singapore-to-develop-50-mw-solar-power-plant-in-indonesias-new-capital-lkr/tracking_page_direct

11) <https://www.suara.com/news/2025/06/20/182814/pubemur-pramono-tegaskan-jakarta-siap-bantu-beli-bangun-mrt-tapi>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주택·부동산 및 도시개발

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미정
- (사 업 비) 466조 Rp
- (사업내용)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난개발, 교통체증, 기반침하 등의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갈리만탄섬 동부지역의 발릭파판과 사마린다 사이에 도시를 신설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
- (추진현황) 재정사업 중심의 1단계(2022~2024) 공사 진행 중

- (주요동향) 前 조코위 대통령은 2023년 9월부터 거의 매월 이틀에 걸쳐 착공식을 직접 주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현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등 우선순위 정책에 비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다소 정체되는 양상

착공식 현황				
차수	일정	주요 프로젝트	금액(Rp)	비고
1	'23.9.21~22	호텔, 병원, 국제	22.9조	
2	'23.11.1~2	병원, 학교, 공항, 태양광발전소 등	15.57조	
3	'23.12.20~21	특별경찰서, 다용도건물, 녹색교통 등	15.57조	
4	'24.1.17	물류창고, 라디오방송국, 신수도청사, 종교시설 등	4.26조	
5	'24.2.29~3.1	은행, 스마트시티, 공공서비스 부문	2.6조	
6	'24.6.4~5	학교 등	1.75조	
7	'24.8.12	호텔, 국제컨벤션센터, 리조트, 업무시설 등	4.97조	
8	'24.9.25	쇼핑몰, 호텔, 아파트, 리조트, 국제학교	1.75조	

- 재정사업 중심의 1단계(2022~2024) 사업에 이어 2025년부터 2단계(2025~2029) 사업 추진 예정. 2단계 사업부터 민자사업 발주 예상
- 국토교통부, 신수도 스마트센터 설립 ODA 사업('24~'26, 99억원) 지원
- 2025년 6월 말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시작될 예정. 6월 23일 사전착공회의(PCM)가 정부핵심업무지구(KIPP)에서 개최

② PPP 사업

① 바탐 항나뎀 공항 개발 사업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WICA 지분(19%)은 인천국제공항이 10%, Angkasa Pura Indonesia (주재국 공항공사)가 9% 취득 예정
- WT2 신설을 위한 자금도 API 중심으로 조달 추진 예정

② 자카르타 MRT 4단계 사업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여기업)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사 업 비) 12억 달러 KIND 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신설 및 운영
- (추진현황) *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1차 EOT 제출('24.6), 2차 EOT 제출('24.12),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주요동향) 자카르타 주정부, AP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 AP 포함된 LTP 발급('25.2)
- K-컨소, MRTJ 및 공공사업부(PU) 산하 고속도로청(Bina Marga)와 업무 협의 및 자카르타 주정부 및 Bappeda(지역개발계획청) 면담

③ 신수도 철도 PPP 사업 지연사업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사 업 비) 40억 달러
- (사업내용) 발릭파판 공항과 신수도 KIPP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 (추진현황) 계획 및 준비 단계

- (주요동향) 신수도청에서 발릭파판 공항에서 신수도 핵심지역(KIPP)을 연결하는 철도 PPP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 입수하고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과 협업 논의('24.4.5)
 - 신수도청 앞 면담 요청 공문 발송('24.4.17)
 - 주인니대사관, 신수도청(발주처) Silvia Halim,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부문 Deputy, 교통부(승인기관) Mohamad Risal Wasal 철도 총국장(Director General of Railways), Otto Adrianto 장관자문관과 면담
 - KAI(주재국 철도운영공기업), MRT Jakarta와 JV 구성 협의 중
 - K-컨소, 신수도청 및 교통부 앞 LOI 제출('24.5~6)
 - 마켓사운드팅 예정(6월)되어 있었으나, 1대1 미팅으로 대체. K-컨소, 신수도청과 1대1 미팅(7.8)
 - * 신수도청은 LOI 제출 기업(11개) 중 적격업체 대상 1대1 미팅 중
 - Unsolicited로 변경없이 Solicited PPP로 진행 예정이며, 100% AP 지급하겠다는 입장
 - 입찰문서 작성 중(연말 완성). 내년초 PPP 입찰서 발급 목표
 - 8월 개항 예정이었던 VVIP 공항을 일반공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 향후 철도 노선 변경도 필요. 2단계로 분리 발주 가능
 - * 1단계 : VVIP 공항 ~ 신수도, 2단계 : VVIP 공항 ~ 발릭파판 공항

③ 에너지 및 플랜트

① LOTTE Indonesia New Ethylene(LINE) 프로젝트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Lotte Chemical
- (참여기업)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사 업 비) 30억 달러
- (사업내용) 납사 분해시설, 가열로, 변·배전시설, 벤젠,톨루엔,혼합자일렌(BTX) 등 생산시설, jetty 등 8개 패키지(1a, 1b, 2~7)
- (추진현황) 공정률 99.9% ('25.3) - 시운전 완료후 100% 인정

- (주요동향) '25.3 준공. 5~6개월의 commissioning 기간을 거쳐 '25.9 준공승인 예정